

# 朝鮮共產黨과 民主主義概念

徐 大 肅

I. 序 論

II. 初期 朝鮮共產黨의 民主主義  
受容

III. 解放後 朝鮮共產黨과 民主  
主義概念

IV. 結 言

## I. 序 論

朝鮮共產黨과 民主主義概念이란 제목자체에 우선 모순이 있는 듯하다. 엄격히 말하면 과거 조선공산당이 民主主義란 概念을 政治理念으로 내세운 적이 없으며 이것을 實踐에 옮기려고 노력한 적도 없다. 20世紀後半期の 國際政勢를 보면 공산주의를 國家의 政治理念으로 삼는 나라들은 非民主主義的인 無產者의 獨裁를 부르짖으며 專制主義 아니면 權力主義 政治體制를 유지하고 있는 反面에 資本主義國家들은 民主主義的인 政治體制를 유지하려고 努力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공산당 뿐만 아니라 어느나라의 공산당도 民主主義와 연결시키기에는 좀 모순이 있는 듯한 感이 든다.

그러나 民主主義란 共產主義國家나 資本主義國家들이 共同히 政治理念으로 삼고 實施하려고 努力하는 思想이다. 民主主義란 政治理念을 어떠한 이름으로 表現하든지 또는 어떠한 方法으로 그 原則을 위반하든지 오늘날의 여러나라들이 民主主義를 願하는 것만은 事實이다. 예를 들면 共產主義國家의 境遇 흔히 그들은 民主主義的 中央集權主義(Democratic Centralism)란 이름으로 民主主義理念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無產者의 獨裁(Proletarian Dictatorship)를 해나가고 있다. 어떤 나라는 그들의 國號에 무슨

民主主義國家라고 칭하면서도 獨裁政權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멀리가지 않아도 北韓의 國號가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이라는 점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民主主義思想의 발상지인 서유럽이나 이 思想을 國是로 삼고 오랫동안 發展시키고 다듬어 온 美國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政治發展을 보면 封建主義國家에서 植民地國家로 變貌했고 解放과 함께 國土가 兩分되어 北에는 共產國家가 南에는 資本主義的인 共和國이 設立되었으므로 民主主義에 對한 傳統이란 그렇게 쉽게 찾아 볼 수 없다. 民主主義思想을 하루아침에 韓國에 부식시키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解放 40年이 지난 오늘 韓國의 第六共和國에서 겨우 民主化의 싹이 트고 있는 것 같다.

이 論文에서는 初期 朝鮮共產主義者들이 民主主義에 對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 問題를, 卽 民主主義概念을 어떻게 發展시켜 왔나 하는데 對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朝鮮共產黨은 1925年 4月에 設立되어 南朝鮮勞動黨으로 合流된 것이 1946年 11月이며 朝鮮勞動黨으로 發展한 것이 1949年 6月이므로 이 論文에서는 朝鮮共產黨時期에 重點을 두고 北韓의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 創立, 1948年 9月, 以前の 朝鮮共產主義者들이 民主主義에 對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對해 簡略하게 論하고자 한다. 朝鮮공산주의자들은 解放後 北韓에서 一律적으로 全部 金日成政權下에서 除去 또는 숙청당했는데, 그들의 民主主義에 對한 概念은 極히 初步的인 것이었고 特히 金日成政權의 非民主主義의 일 뿐만 아니라 非共產主義的인 統治下에서 그들의 初步的이나 民主主義的 影響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서유럽이나 美國, 第三世界의 民主主義를 莫論하고 民主主義의 基本原則에 對해서도 簡略하게 言及하고자 한다.

## Ⅱ. 初期 朝鮮共產黨의 民主主義 受容

우리나라 民族主義運動者들도 그러했지만 共產主義者들의 外來思想 受容은 中國이나 日本 共產主義者들과 달리 抗日革命運動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서 中國의 陳德秀나 李大釗같은 學者들이 共產主義를 받아들여 진과한 것과는 여러가지로 다른점이 많다. 그 중에서 第一 重要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外來思想研究의 貧弱性이다. 예를 들면 러시아革命 當時 시베리아나 沿海州에서 朝鮮革命軍들은 볼세비키나 멘세비키의 主義主張을 莫論하고 朝鮮의 抗日運動을 도와주는 쪽이면 어느 쪽이든지 가담해서 싸워 주었다. 當時 그들은 民主主義思想은 고사하고라도 共產主義理念조차 아주 初步的이었다. 李東輝가 레닌을 만났을 때도 레닌은 朝鮮의 無產者解放을 이야기하고 李東輝는 소련의 원조를 받아서 反共國家이며 朝鮮을 植民地化한 日本과 싸워 祖國을 獨立시키는 데 對하여 이야기했다.<sup>1)</sup>

조선의 革命運動이란 民族陣營이나 共產陣營을 莫論하고 最終目的은 獨立이었고 이름만 共產黨이니 民主, 社會黨이지 外來思想의 主義主張을 批判 또는 韓國化하려는 努力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이런 現狀의 一例로서 上海 첫임시정부의 初代大統領은 美國에서 공부한 完全自由主義者이며 基督敎人인 李承晩이었고 初代國務總理는 高麗共產黨의 黨首인 李東輝였다.

구래여 우리가 民主主義的인 要素를 初期共產主義者들 중에서 찾으려면 全無한 것은 아니다. 即 1921年 5월에 發表된 高麗共產黨宣言을 보면 言論, 出版, 集會 등의 自由를 主張하고 있고 그 綱領에도 男女平等의 權利 등을 主張하고 있다.<sup>2)</sup> 그러나 그들은 同時에 非民主主義的인 要素도 풍부

1) 李東輝는 1921年 11월에 朴鑣淳과 A.A. Kim 을 대동하고 레닌을 만나 約 30分 會談을 하였다. M.T. Kim, *Koreiskie internatsionalisty v bor'be za vlast' Sovetov na Dal'nem Vostoke, 1918~1922*(Moskva : Izd. Nauka, 1979), pp. 46~49.

히 가지고 있었다. 卽 宗教의 自由를 否定하고 宗教는 迷信에 不遇하므로 迷信退治運動을 하자고 했다. 特히 高麗共產黨 最初黨規에는 思想問題에 對한 言及은 없었다. 이것과 結付해서 海外的 公산주의운동이 國內로 들어와 1925年 4月 서울에 처음 조선공산당이 創立되었을 때도 그 創黨文獻에는 民主主義要素가 여러가지로 反映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들도 亦是 男女平等權, 言論, 集會, 結社의 自由를 主張한 程度였고 勞動者·農民의 自由를 爲해 鬪爭한다고 했을 뿐이다.<sup>3)</sup> 조선공산당의 最初 17個項 슬로건이나 黨政綱에는 民主主義란 말이 한마디도 들어가 있지 않다.

朝鮮共產主義運動文獻에 民主主義란 말이 第一 처음 나타난 것은 朝鮮共產主義者들에 錫어진 것이 아니라 國際共產主義運動에서 조선공산당에 準 文獻에서 비롯된다. 卽 코민테른(Comintern)의 1928年 12月테제에서 '조선革命은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Bourgeois-Democratic Revolution)이라 단정하였던 것이다.<sup>4)</sup> 이 테제는 그 當時 코민테른의 執行委員會 委員 4名(월다넌, 미프, 中國의 瞿秋伯, 日本의 佐野學)이 쓴 것인데 이 句節을 舉論하게 된 動期는 그들이 조선의 土地改革이란 土地革命을 도모하려는 데 있었다. 卽 그들의 主張에 依하면 朝鮮革命이란 土地革命이며 이를 朝鮮革命發達 第一段階라고 했다. 그리고 모든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은 無產者의 領導下(Proletarian Hegemony)에서 社會主義革命으로 發展한다고 했다.

이러한 코민테른의 見解는 3年後 쿠시넨(Otto Kuusinen)이 조선공산당에 對 準 親書에서 더욱 強調되었다.<sup>5)</sup> 쿠시넨은 핀란드共產主義者로서 코민테

2) Dae-Sook Suh, *Documents of Korean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0), pp. 25~33.

3) 「朝鮮獨立思想運動의 變遷」(京城: 朝鮮總督府 法務局, 秘, 1931), pp. 42~66.

4) "Resolution of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Communist International on the Korean Question," *Inprecorr*, vol. ix, no. 8 (February 15, 1929), pp. 130~133.

5) Otto Kuusinen, "On the Korean Communist Movement," *Revolutsionnyi vostok*, no. 11~12(1931), pp. 99~116.

은 執行委員會 委員이었고 스탈린과 親近한 者였다. 그는 朝鮮革命의 派爭을 指摘한 다음 朝鮮革命은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이라고 하고 이 革命은 조선공산당의 領導下에서만 完遂될 수 있다고 했다. 조선공산당과 朝鮮無產者의 第一急先務는 勞働者·農民의 革命的 民主主義 獨裁政權을 樹立하는 데 있다고 했다.

이러한 코민테른의 要求에 조선공산당은 어떠한 反應을 보였는가? 1934年初에 조선공산당은 朝鮮共產黨 行動綱領이라는 文獻을 통해 現段階의 朝鮮革命은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이라고 하고 이러한 革命을 展開完遂하기 爲해서는 4個의 行動綱領을 提示한다고 했다.<sup>6)</sup>

1. 日帝를 武力으로 몰아내고 그들의 財産을 몰수하여 朝鮮의 完全獨立을 가져올 것.

2. 勞働者·農民의 소비에트政權을 樹立할 것.

3. 土地와 山林의 沒收과 이것을 勤勞大衆과 農民에게 無償分配하고 勞働者·農民을 壓迫하는 모든 契約과 協定을 無效로 할 것.

4. 八時間勞働制의 實施와 勤勞者를 爲한 社會安全, 賃金引上 그리고 醫療保險 等を 保障할 것.

結論에 이르러 朝鮮革命의 첫단계는 勞働者·農民의 革命的 民主主義 獨裁政權을 樹立하기 爲해 勤勞大衆을 이기는 데 있다고 했다.

코민테른의 最終大會인 1935年 第七次大會에서는 全世界 公산주의 運動者들로 하여금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가 合勢하여 日本軍國主義나 독일의 나치즘에 맞서 싸우라는, 이른바 反帝國主義를 爲한 國共合作政策을 採擇하였는데 여기서 朝鮮共產黨을 代表하여 金河一이 演說하였다. 이 演說은 朝鮮人이 全部 團結하여 反帝 特히 抗日戰線에 나서라고 要求하는 것이지 조선의 民主力量이나 日帝打倒後에 樹立할 朝鮮의 民主主義政權에

6) 이 書類는 朝鮮共產黨 發起그룹의 名義로 國外에서 써어진 것인데 英文으로 모스크바에서 發表되었다. 朝鮮共產主義運動家 韓偉健의 作品인 것 같다. 소련에서 發表된 英文原文은 "Platform of Action of the Communist Party of Korea", *Inprecorr.*, vol. xiv, no. 11 (February 23, 1934), pp. 303~305.

對하여는 전혀 言及하지 않았다.<sup>7)</sup>

여기에 簡略하게 살펴 보았듯이 解放前 朝鮮共產黨의 民主主義에 對한 概念이란 極히 初步的인 것이었다. 民主主義革命보다는 反帝 特히 抗日運動에 더 기울어져 있었고 無產階級の 共產革命鬪爭을 抗日鬪爭과 연결시키는데 그 重點이 있었을 뿐이며 民主主義勢力의 培養이나 推進에 努力을 傾注하였던 것은 아니다. 또 코민테른의 指示나 쿠시넨의 親書도 朝鮮革命에서는 國內의 非共產主義 即 부르조아勢力과 손잡고 같이 革命運動을 하라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民主主義的 要素를 찾아서 發展시키라는 것은 아니었다. 朝鮮共產主義者들의 이러한 부르조아民主主義勢力과의 合勢運動이 있었다면 이것은 勿論 新幹會運動이었으나 여기에도 무슨 特出한 民主主義勢力이라고 規定할 만한 것은 없었다. 그뿐 아니라 조선공산주의자들이 新幹會內에서 活動한 일이라고는 結局 新幹會를 解體한 것 뿐이다. 朝鮮共產黨 發起그룹이 1934年에 發表한 四個項의 行動綱領을 分析해봐도 亦是 民主主義에 대한 受容은 찾을 수 없다. 또 1920年代 後半 조선에서 가장 活潑하게 進行되었던 朝鮮共產主義運動이 비록 朝鮮獨立運動의 主動力이 되었다고 假定한다 하더라도 朝鮮의 無產階級이나 共產主義運動者들이 朝鮮의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運動을 指導한 일은 없다고 본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1930年代의 朝鮮半島 全域에 活潑하게 일어났던 赤色 勞組運動이나 農民運動을 보더라도 이것이 朝鮮民主主義勢力의 培養에 貢獻했다고 하기 보다는 朝鮮의 反帝反封建運動의 一環으로서 直接的으로 抗日鬪爭이라고 하는 것이 더 適切하다고 생각된다.

### Ⅲ. 解放後 朝鮮共產黨과 民主主義概念

解放前과 解放後의 조선공산당 文獻을 比較해 보면 눈에 띄게 變化한 것

7) 金河一, 「反帝國主義戰爭에 있어서의 朝鮮共產主義者들의 任務」(모스크바, 1935).

中の 하나는 解放後의 文獻에는 民主主義란 用語의 使用빈도가 훨씬 높아졌다는 점을指摘할 수 있다. 그러나 解放後의 조선공산당의 民主主義에 對한 受容이나 理解 또는 그의 使用法이 解放前과 別로 急變한 것은 없고, 民主主義概念에 對한 朝鮮共產主義者들의 見解를 說明한다든가 民主主義가 어떤 政治理念이기 때문에 解放된 조선의 政治思想으로 適當하여 조선공산당이 支持한다는 등의 基本的인 思想的 뒷받침은 如前히 찾아보기 힘들다.

解放後 조선공산당의 發展狀況을 簡略하게 되돌아 보면 조선공산당의 壽命은 一年 三個月 남짓한 極히 짧은 것이었다. 卽 解放後 조선공산당은 그 主流라고 볼 수 있는 콤그룹(Communist Group)의 發展으로 박헌영指導下에 1945年 8月 20日에 出帆하여 다음해 11月 23日에 남조선勞動黨으로 變身하고, 다시 北朝鮮勞動黨에 흡수되어 궁극적으로는 朝鮮勞動黨으로 發展되어 갔다.<sup>8)</sup>

越北한 朝鮮共產黨 指導者들은 金日成治下에서 한국전쟁을 마친 후에 거의 全部 숙청되고 만다. 民主主義思想은 차치하고 그들의 共產政權樹立의 理念이 現 北韓의 政治理念에 조금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現 北韓은 소련軍駐屯下에서 共產化되었고 朝鮮共產主義運動과는 아무런 關係도 없는 소비에트政權으로부터 金日成의 이른바 主體思想國家로 發展한 것이다. 國名은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이라고 되어 있으나 民主主義나 共和國의 理念과는 많은 差異가 있는 나라이다.

이렇게 짧은 壽命을 가진 조선공산당의 活躍도 그 出發할 때부터 조선공산주의자들 사이에서 民主主義에 對한 認識差異는 顯著하게 볼 수가 있다. 解放後 第一 먼저 공산당을 宣布한 것은 非主流派인 長安그룹이었는데

8) 北朝鮮勞動黨은 1946年 8月 29日에 創立되었고 다음날인 8月 30日에 南朝鮮勞動黨 創立에 對한 決定書를 發表한다. 그리고 南朝鮮勞動黨은 約 2個月後인 1946年 11月 23日에 創黨되나 1949年 6月 24日 兩黨合同大會도 없이 南北勞動黨 第一次 合同中央委員會에서 朝鮮勞動黨이 宣布된다.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편, 「북조선로동당창립대회 계자료」, pp. 57~64.

데 解放되던 날 밤에 長安빌딩에 모여 다음날 創立되었다. 콤그룹은 8월 20일에 조선공산당 再建準備委員會를 結成하고 박헌영의 '8월테제'를 政治路綫으로 채택하였다. 이 '8월테제'는 "現情勢와 우리의 任務"라는 題目으로 씌어진 조선공산당의 政治路綫인데 여기서 박헌영은 朝鮮革命의 現段階는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이라고 규정하였다.<sup>9)</sup> 이것은 코민테른의 十二月테제, 쿠시넌親書, 그리고 1934년에 朝鮮共產黨 發起그룹이 提唱한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을 되풀이한 것이다. 박헌영은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의 內容에 對해 朝鮮의 完全獨立과 土地問題를 解決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前 發起그룹의 四個정강中 第一項과 第三項을 간추려서 發表한 것이다. 그는 보다 자세하게 또 다른 重要한 課業도 言及하였다. 言論, 出版, 集會, 結社, 街頭行進, 파업의 自由를 完全히 얻어야 하고, 8時間 노동제를 實施하고, 一般大衆의 生活이 急進的으로 改善되어야 하고 日帝의 모든 土地, 山林, 鑛山, 工場, 항만, 운수기관, 電信, 銀行 等 일체 財産을 無보상으로 沒收하여 國有化한다고 했다. 國家부담의 義務敎育을 實施하고 女子의 經濟적, 政治적, 社會적 位置를 向上하고 單一累進稅金制를 實施하고 國民義兵制를 실시하고, 18歲 以上の 男女平等 선거, 피선거권을 부여할 것을 主張했다. 그는 이러한 것이 '進步的 民主主義'의 要求라고 主張하였다.

이러한 박헌영과 콤그룹의 8월테제를 反對하여 長安그룹은 9월 15日 "조선독립과 공산주의자의 긴급임무"라는 제목하에 獨自의인 테제를 發表하였는데, 최창익, 李英, 鄭栢 等은 朝鮮革命은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으로부터 프롤레타리아民主主義革命으로 段階的이나 序列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두 個의 革命이 同時에 遂行되면서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은 프롤레타리아民主主義革命의 一部分을 차지한다고 主張했다. 이는 長安

9) 8월테제에 對하여 求하기 힘든 史料를 모아 整理해 놓은 冊이있다. 김남식, 심지연 編著 「박헌영 노선비판」(서울: 世界 1986), pp. 25~60; 179~195.

그룹이 박헌영의 主張을 반박하면서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의 主要課業 卽 完全獨立과 土地改革은 거의 解決되었다고 判斷하고 國內民族主義者와 民族改良主義陣營과 對立해서 無產者의 階級모니를 早速히 爭取하려는 立場이었다.

이와 달리 박헌영은 8月테제의 結論에서 “조선의 객관적 경제, 정치, 사회적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무조건하고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의 제과업 수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요, 조선에서 프롤레타리아革命의 단계는 아직 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힘있게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結論의 바탕은 박헌영의 조선독립에 對한 올바른 상황판단에서 나왔다고 본다. 卽 최익한의 長安그룹이 조선독립은 거의 完遂되었다고 쉽게 斷定했을 때 박헌영은 朝鮮의 完全獨立에는 如前히 여러가지 問題가 있다고 본 것이다. 卽 1945年 12月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朝鮮問題에 對한 三相會議 決定을 지지하자는 글에서 박헌영은

“우리는 물론 우리조선민족의 즉시 자주독립을 열렬히 희망합니다. 실로 이 자주독립을 위하여 우리 공산당은 누구보다도 용감하게 일본제국주의와 싸워 온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완전하게 되어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자립할 것을 희망합니다. 그러나 대단히 가슴아픈 일이나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일본제국주의를 축출하지 못하였고 우리나라에 아직도 일본제국주의의 잔존 세력을 소탕하지 못하였고 선진국의 힘을 빌지 않고는 무너진 산업경제의 부흥은 곤란하며 아직도 우리민족 자체의 통일전선이 완성되지 못한 등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sup>10)</sup>

박헌영은 南北의 單獨 政府樹立을 反對했을 뿐 아니라 朝鮮共產黨主張이란 題目下에 朝鮮民族統一戰線結成에 對해 言及하면서 長安그룹이 패종의 振子처럼 左傾 또는 極右傾하는 것(反動的 民族부르조아와 서로 無條件 媾和자는 主張)을 일축하고 朝鮮의 建國理念은 進步的 民主主義를 原則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1)</sup> 그리고 이러한 진정한 民主主義者는

10) 「해방일보」, 47, 1946年 1月 17日.

11) 「좋은 路線을 爲하야」(서울: 우리文化社, 1945), pp. 1~8.

1. 日帝의 殘存勢力과 親日派를 肅清해야 하고
2. 朝鮮人民의 利益을 爲하여 實際鬭爭해야 하고
3. 平和와 戰爭防止를 爲하여 世界民主主義諸國과 親善을 도모하고
4. 進步的 民主主義를 가장 잘 實踐하는 朝鮮共產黨과 協力を 拒否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러한 理論問題로 인하여 두 그룹은 表面的으로는 合流하여 1945年 9月 11日 統一된 朝鮮공산당을 宣布하였으나 實際적으로는 合流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 뿐만 아니라 約 一年後에 完成된 南朝鮮 勞動黨이 朝鮮新民黨, 人民黨, 그리고 朝鮮공산당이 合流하여 成立되었다고 하나 그 實際는 三黨 모두 각기 內부적으로 양분된 상태에서 朝鮮共產黨이 北韓의 指令을 받고 南朝鮮 勞動黨을 發足시켰다 해도 過言이 아니다. 해방후 朝鮮공산당의 民主主義的 追求는 朝鮮공산당의 몰락과 함께 없어지고 만다. 朝鮮공산당은 朴헌영을 총비서로 선출하고 北朝鮮分局設置를 許容하면서 解放朝鮮의 合法的 政黨으로 出帆하였으나 南韓에서는 美軍軍政에, 北韓에서는 소련軍政의 탄압을 받고 黨自體 뿐만 아니라 指導者들도 全部 肅清당하였다.

1945年 9月 8日 서울市內 桂洞에서 열린 朝鮮共產主義運動 熱誠者大會나 1945年 10月 13日 平壤에서 열린 北朝鮮五道黨員及 熱誠者聯合大會에서나 이들 會議錄을 보면 朴헌영의 領導權은 絕對的이었다. 平壤에서도 會議式順에 따라 朝鮮공산당責任秘書 朴헌영에게 祝電을 보냈고 또 朝鮮共產黨 北朝鮮分局 設立때에도 그들의 黨規律決議에 對한 복종문제에서

“北朝鮮에 黨北部分局設置의 必要로서 黨中央에 直속되어 直營될 것이며 어떠한 때든지 中央에서 必要를 認定하지 않는 境遇 또는 改革時 改善을 必要로 認定할 때는 언제든지 中央에서 處理할 權利가 있고 分局에서는 복종할 義務가 있다”

고 씩어져 있다.<sup>12)</sup>

朝鮮공산당의 末路는 周知하는 바이지만, 이 分局을 金日成이 장악한 뒤

12) 「五道黨員及熱誠者聯合大會會議錄」(平壤：平南地區委員會, 1945), pp. 35~57.

소련駐屯軍의 指揮下에 北朝鮮에서 新民黨과 조선공산당을 合流하여 北朝鮮勞動黨을 設立하고 南勞黨의 조직을 指令하면서 시작되었다. 組織의 으로 흡수당했다고 해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民主主義의 인식은 北朝鮮共產政權에 반영되었는가 하면 그것도 亦是 아니다. 北朝鮮에서 1946年에 이행된 여섯개의 民主改革 即 土地改革·農業現物稅法令, 重要產業의 國有化, 勞動法令, 男女平等權, 그리고 民主選舉法 等은 모두 六個月 以內에 完遂되었으며, 이것은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이라기 보다 소련이 指示한 改革의 實踐이다.<sup>13)</sup> 소련軍政은 이와같은 改革을 自己들이 占領한 東유럽國家들에서도 施行하였다.

박헌영의 民主主義概念 뿐만 아니라 다른 조선공산주의자들의 理念도 다 抹殺되었다. 例를 들자면 第一 有名한 것은 北朝鮮建國 初期에 吳禎燮이 職業同盟에 관련된 意見을 發表하였는데 即 社會主義나 共產國家에서도 勞動者들이 國家에 對해 과업을 할 수 있다고 主張하였다. 現在 폴란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솔리다리티'의 立場과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金日成과 소련에서 나온 北朝鮮의 指導者들 特히 朴昌玉, 金烈 等으로 부터 猛烈한 공격을 받고 黨大會에서 오기집은 自己批判을 하였다.<sup>14)</sup> 조선공산당이 提唱한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에서 重點의인 要素인 勞動者들의 罷業權利는 社會主義國家에서 허락되지 않는다는 역설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텔리로 널리 알려졌던 白南雲은 자신의 聯合性新民主主義에서 朝鮮共產黨의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은 우리나라에 不當하다고 주장했다.<sup>15)</sup> 그는 解放後의 조선사정은 다른나라의 경험과 달리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는 聯合하여 新民主主義革命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여기

13) Dae-Sook Suh, "Preconceived Formula for Sovietization: North Korea," in T.T. Hammond, ed., *The Anatomy of Communist Takeove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5), pp. 487~489.

14) 「북조선로동당 제이차 전당대회 회의록」(평양: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1948), pp. 112~139.

15) 白南雲, 「朝鮮民族의 進路」(서울: 신진사, 1946).

에 對해 조선공산당의 李基洙, 金南天 等은 白南雲의 聯合性 新民主主義는 無原則한 統一論이라고 반박했으며 白南雲 자신도 以北으로 가서 金日成 初代內閣의 敎育相이 된 후 聯合性 新民主主義에 對하여는 一言半包도 言及하지 않았다. 이렇게 朝鮮革命의 現段階가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이며 이것을 좀 더 詳細히 主張한 오기섭과,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을 全面的으로 否認하고 完全히 다른 聯合性 民主主義를 提唱한 白南雲은 모두 우리나라 左翼, 공산주의系列에서 特出한 理論家였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공산주의자들의 民主主義概念은 소련軍政下에 創立된 朝鮮勞動黨과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에서 아무런 效果도 발휘하지 못하였다.

#### IV. 結 言

吳祺燮이나 白南雲 外에도 우리나라解放後 民主主義概念에 對하여 言及한 사람은 많다. 李康國, 姜進, 呂運亨 其他 모든 政治人들이 조선반도에 新民主主義的 또는 進步的 民主主義國家를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들의 要求가 段階的이건 進步的이건 또는 소련式이건 美國式이건 民主主義國家를 세워야 한다는 데에는 同意했으나 어느 누구도 그 民主主義의 基本原則이 무엇이라는 分析 乃至 說明은 하지 않았다. 民主主義란 政治學徒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바대로 아주 복잡 多樣的 政治理念이다. 民主主義概念을 論하려면 學者들 사이에서도 合意가 어렵고 民主主義라는 政治理念의 正義를 내리기도 쉽지 않다.<sup>16)</sup>

美國式이나 서유럽式, 또는 소련式의 中央集權制를 莫論하고 民主主義에는 基本原則이 있는데 그 中 아주 보편적인 다섯개 原則만 簡略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6) 民主主義理論에 對한 冊은 多様하다. 다음과 같은 冊을 보라. Henry B. Mayo, *An Introduction to Democratic Theory*, 1960; Robert Dahl, *A Preface to Democratic Theory*, 1956.

첫째로 民主主義는 國民이 國家의 主權을 가지고 있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英國이나 日本같이 君主나 皇帝가 存在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그들의 政治歷史는 國民이 主權을 爭取하는 鬪爭史이다. 이러한 國民의 主權을 남용 또는 褫奪할 때 그 國家는 獨裁나 非民主主義國家라고 불려지게 된다.

둘째로 民主主義國家制度는 爲政者를 國民이 統制하는 것이다. 規定된 期限을 두고 選舉를 通해 國民이 爲政者를 統制하는 것은 重要的 意味를 지닌다. 選舉를 通해 國民이 自己의 主權行使를 하고 거기에서 當選된 代議員과 그들의 議決이 正統性을 發輝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絕對로 國民이 政策을 직접 樹立하거나 決定한다는 것은 아니다.

셋째로 政治的 平等權(Political Equality)의 行使이다. 平等權이란 보통 선거권, 피선거권의 행사(Universal Suffrage), 一人一票의 原則으로 한 표 한표의 效能이 一律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네째로 政治的 自由의 保障이다. 이는 國民이 그들의 爲政者나 代議員을 選出하는데 重要的 原則이며 이것으로 國民의 統制力이 完全히 發輝하게 된다. 言論, 集會, 結社, 其他 모든 政治的 自由를 비롯하여 爲政者를 批判할 수 있는 自由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多數可決의 原則이다. 이것은 主權을 가진 國民으로부터 正當히 選出된 代議員들이 決議權을 行使할 때 多數可決로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國民自體가 直接的인 政策決定權을 가진다는 말은 아니다.

이런 原則으로 보면 民主主義 政治制度라는 것은 主權을 가진 國民이 政治的 自由가 保障된 環境에서 政治的 平等權을 行使하며 定期的인 選舉를 通해 爲政者를 統制하고 正統性을 所有한 代議員이나 爲政者들이 多數可決의 原則으로 國策을 決定한다는 말이다.

이것은 누가 봐도 아주 基本的이고 初步的인 民主主義의 原則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共產主義나 民族主義 獨立運動에 參與했던 사람들은 民主主義란 表現을 하면서도 이런 原則을 利用하고 이것을 洗練시켜 新設國家

의 政治思想으로 삼으려고 했던 흔적은 없다. 民主主義란 우리나라의 傳統의인 政治思想이 아니므로 우리나라 政治風土나 政治文化에는 不適合한 思想이고 따라서 찾아보기 힘든 概念이다. 이로 인하여 南韓에서는 非民主主義의인 政治를 正當化하기 爲해 韓國式 民主主義나 民主主義의 土着化니 하며 많은 努力을 했던 반면 北韓에서도 共產主義國家들이 흔히 쓰는 民主主義 中央集權制를 採用하여 適應하려 하지 않고 人民民主主義란 名目下에 獨裁政權을 오래동안 유지해 왔고 共產主義나 民主主義와는 아주 거리가 먼 主體思想을 提唱하고 있다.

그렇다고 朝鮮共產主義者들이 民主主義原則을 完全 等閑視하거나 度外視했다는 것은 아니다. 政治自由의 原則 같은 것은 朝鮮民族이 日帝에 오래 彈壓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日帝로부터 解放되기 前부터 言論, 集會, 出版, 其他 街頭行進하는 自由까지 부르짖어 왔다. 또 1945年 9月 京畿高女 강당에서 全國人民代表者大會를 열고 建國準備委員會가 朝鮮人民共和國 樹立을 決定할 때 許憲은 이 새나라의 主權은 人民에게 있다고 主張했던 바 있다.

그러나 朝鮮共產黨과 初期共產主義運動者들이 말하는 民主主義나 進歩的 民主主義에서는 民主主義概念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當面한 政治問題 解決에 直面하여 그것을 解決하는 것이 마치 民主主義를 實施하는 것같이 主張하였다. 해방직후의 土地改革 또는 日帝殘存勢力과 親日派의 肅清 等은 國家樹立의 前提條件일지는 몰라도 民主主義概念과는 아무 連關도 없는 것이다. 實은 土地改革이나 日帝의 잔재 財產 몰수, 그리고 親日派의 肅清은 한국이나 朝鮮반도에 어떠한 나라를 세우더라도 前提條件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韓國이나 北韓을 봐도 親日派의 完全肅清에는 成功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 獨立運動家 民族陣營이나 共產陣營을 莫論하고 特히 日帝에 彈壓을 받아 진물한 愛國者들에게 수치스러운 事實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獨立運動과 共產革命의 評價이지 民主主義概念과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

또 左翼系統의 指導者들은 그들의 黨과 政府組織原則에서는 소련의 民主主義的 中央集權制를 좋다고 하고 美國式 民主主義보다는 소련式 社會主義的 民主主義에 同調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것은 左翼이 美國보다 소련이 좋다는 政治的 好感의 表現이지 소련의 民主主義 中央集權制의 무엇이 解放朝鮮에 適合하며 美國式 民主主義의 어디가 解放朝鮮에 不適合하다는 것을 表現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政治風土나 政治文化에 비추어 볼 때 民主主義概念은 받아들이기 쉬운 政治理念이 아니었고 또 初期 共產主義者들의 民主主義에 對한 概念도 極히 初步的인 것이었다.